

3. 동서통합지대 구상에 따른 대응방안

3.1 현황

가.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 개요

■ 추진배경

-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과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정
 - 섬진강 양안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해 동서 간 갈등에너지를 통합의 발전시너지로 전환하여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부문의 교류협력, 인프라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 비전 및 목표

- 비전 :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 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
- 목표
 -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상징지대
 - 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조경제의 선도지대
 -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지대
- 추진전략
 - 다양하고 특색있는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 연계 활용
 -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 동서통합지대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

■ 사업추진 방향

- 물적 사업 중심인 기존 계획(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경자구역 개발계획 등)에서 제시하지 못한 동서 간 연계사업 중심으로 계획 수립
- 공간적으로 공유지역과 배후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구상
 - 공유지역 : 섬진강 양안, 광양만 해상(동서통합지대의 중심지역, 통합 상징성이 높은 문화관광산업, 신산업 육성 및 인적 교류, 연계 촉진)
 - 배후지역 : 여수, 순천, 진주, 사천(경제분야 중심의 교류·협력 추진)



(그림 III- 61)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도

나. 광양시 관련 주요사업 검토

○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 중 광양시와 관련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

< 표 III- 97 > 광양시 관련 주요 세부 사업계획 검토

추진전략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역	광양시 대응방안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기반 확충	섬진강 화합의 길 조성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광양, 하동, 구례	나루터, 보트캠핑장, 래프팅장, 강수욕장, 마리나, 쥘와이어 등
		섬진강 하늘길 동서케이블카 설치	광양, 하동	L=3.5km, 승강장 3개소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	광양, 하동	문화예술 교류센터, 박물관, 음식체험관, 판소리 전수관 등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광양, 하동, 구례	섬진강 경관 및 생태보존계획수립 및 조례 제정 등	
미래 소재산업 거점 구축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	광양만권	미래형 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업용지 지정 등)	
	광양 신소재관련 연구기관 유치	광양	광양연구소 유치	
동서교류축진 교통인프라 확충	동서통합대교 건설	광양, 하동	L=372m, B=13.5m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광양, 하동	L=524m, B=11(2차로)	
동서주민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협력 강화 및 시설 개선	하동, 광양, 구례	섬진강 권역 봄꽃축제 교류 협력사업	

3.2 과제

- 투자유치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강구해야 함
- 그간 동서통합지대내 지자체들간에 공동발전을 위한 적극적 협력이 부족하였는바, 동반성장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 연계전략 구사가 필요함
- 동서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와 첨단산업 융합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3.3 목표

- 동서통합지대는 광양만권의 기존 제조업과 첨단기술(IBEC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개편과 함께 새로운 경제거점 형성
- 섬진강, 백운산, 지리산, 남해안 일원의 풍부한 역사·문화·경관·자연자원을 토대로 품격있는 문화예술회랑지대로 발전하기 위해 관광거점공간 조성 및 관련시설 클러스터화, 그리고 주변 타 지역과 연계발전전략을 강구함
- 광양만권 주변지역(여수, 순천, 하동, 남해, 사천, 진주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내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함

3.4 실천계획

가.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기반 확충

■ 섬진강 화합의 길 조성

-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
 - 뱃길과 둘레길, 자전거길 등 다양한 ‘길’을 연결시켜 통합적 관광루트로 조성함
 - 뱃길 포구로부터 내륙 관광거점지로의 연계통로를 확보함

■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

- 섬진강변 핵심 관광거점공간 조성
 - 섬진강변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꽃축제, 체육축제,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내방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핵심 관광거점공간 조성이 시급함
- 축제, 체육행사 등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주변지역과 연계화 추진
 -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와 연계된 테마로드를 광양으로 연장시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함
 - 마라톤 축제나 걷기축제 등을 개발하여 주변 지역들과 연계형 축제가 되도록 함
 - 장터 개설 등 하동지역과 광양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유사업을 적극 개발함



(그림 III- 62) 문화예술회랑지대 구상

나.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

■ 광양 탄소 신소재산업 육성

- 조선산업과 연계한 탄소섬유 및 탄소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장비구축이 중요함
- 세풍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래핀(Graphene: 강도, 열전도율, 전자이동도 등 여러 특성이 뛰어난 신물질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태양전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핵심소재), 탄소섬유(Carbon Fiber: 석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주원료로 만든 섬유소재로 가볍고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고강도, 고탄성, 경량화 소재로 활용)에 대한 R&D센터 및 상용화사업 지원
- 이를 통해 남해안권 항공기 및 해양플랜트 제조에 필요한 첨단소재를 공급토록 함

■ 광양 신소재관련 연구기관 유치

- 동서통합지대 산업 재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역할을 담당할 세계수준의 R&D 연구기관 유치
- 지식산업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재편을 준비하여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지향적 산업구조 이행 촉진

■ 산업측면에서 주변 지역과 협력적 시너지 발생 유도

- 그간 동서통합지대에 속한 시군들은 식품을 제외하고는 관련성이 적었으나, 지리적 특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섬진강 양안지역(광양, 구례, 하동), 광양만 해상지역(광양, 여수, 남해)을 중심으로 하면서 배후지역(여수, 순천, 진구, 사천)을 연결해 신산업 유치 및 연계를 촉진함
- 자원-시설간 연계사업으로 인적·기술 네트워크 형성, 테스트베드 조성, 연계 인프라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다. 동서통합대교 건설

- 동서통합대교는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을 연계하는 기능의 다리로서 다압면 관동마을-하동군 하동읍 흥용마을 구간을 연결
- 광양쪽 연결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광양만의 독특한 문화예술회랑지대로 발전시킴

4. 전남 동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대응방안

4.1 전남 동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개요

■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한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역발전 추진전략 마련
-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방향 및 추진체계 마련

■ 계획의 범위

- 계획 기간 : 2014 ~ 2018(5년)
- 공간적 범위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내용적 범위
 - 생활권의 비전 구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적인 사업계획
 - 생활인프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5대 분야 중 중점 추진사업 기획·발굴
 - 생활권사업 추진체계 및 지자체 재정투자계획 등